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이 채 아물기도 전에 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7일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인기 밴드 그룹의 거리공연을 지켜보고 있던 관객들이 발발의 환풍구가 붕괴되는 바람에 16명이 죽고 11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주말 오후 퇴근 시간 무렵 잠깐 짬을 내서 연예인들의 춤과 노래를 즐기려고 했던 시민들의 춤과 노래를 즐기려고 했던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어처구니없는 죽음과 뒤흔고 만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고를 두고 우리는 다시 누구를 얼마나 더 원망해야 속이 후련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후진국 수준의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은 역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덕적 성찰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득 거울 속의 나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얼마나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가

라고. 운전 중에도 통화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문자를 보내고 기사검색을 하는가 하면, 신호위반을 하고 정지선을 어긴 경우는 그야말로 부지기수가 아니었던가.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들은 적이 과연 있거나 했는가.

곱씹어볼수록 나의 일상은 크고 작은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뒤죽박죽이었다. 그대 놓고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관계자나 공무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이나 했었으니 실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천만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당한 안전사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행운이 언제까지나 나에게 머물기만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군가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 자기반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은 바로 "나한테는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신념"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번 사고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너나 할 것 없이 무대가 잘 보이는 높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때마침 무대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기가 막힌 장소를 발견했다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곳으로 몰려갔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것이 이번 환풍기 붕괴사고의 본질인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의 우리도 언젠가 이번과 똑같은 사고의 희생자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안전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전요원의 지시는 있으나마나이다. 그들이 '이곳은 위험하니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던들 누가 거들떠보거나 했겠는가.

어느 베테랑 소방관은 안전 불감증에 단계를 있는데, 우리사회의 경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초기단계가 아니라 '아무리 위험하다고 말해도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는' 말기단계에 가깝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100년 아무 일이 없다가도 101번째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안전사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많은 재해현장을 지켜본 소방관의 말인 만큼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은 뛰

어나지만, 다음번에는 그 불행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능력은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관련 보도를 지켜보면 서 남에게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곧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임을 절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느 하나 공업(共業) 아닌 것이 없다. 외견상 우리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자연재해도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축성된 공업의 과보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의 원인이 너무나 분명한 각종 안전사고는 우리들 자신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공업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답은 '네'가 아니라 '나'였던 것이다. 성숙한 시민이라면 다른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전에 '내'가 바로 안전사고의 유발자이자 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종교편향·훼불, 근본 대책 필요

한국사회를 다종교사회라고 한다. 헌법에 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믿을 신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러 종교가 함께 있다 보니 갈등이 벌어진다. 문제는 갈등의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여기에 실무 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뿐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개신교의 '땅밟기' 기 도다. 지난 7월에는 부처님 정각 성지 인도 부 다가야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땅밟기 기도를 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수석사에서 땅 밟기 인증 사진을 남겨 털미가 잡힌 목사 도 있었다. 10월 19일에는 구미 도리사에서 지역 교회 목사와 신도가 경내지인 서대에 서 예배를 보다 주지 묘장 스님의 제지를 받 기도 했다.

종교편향도 꾸준히 있다. 대구시립합창단은 지난해 지휘자 취임 이후 찬송가 공연으로 물 의를 빚었고, 올해에도 지자체 연합 행사에 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해서 결국 자리에서 내 려와야 했다. 또한 속초시에서도 비슷한 일 이 벌어져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종단의 대응 기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종교편향 대응 기 구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유일하다. 하지만 2013년 3월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은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됐고, 현재까지 위원 장 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실무 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뿐이다.

종교편향과 훼불이 치밀해지고 지능화되 고 있지만 정작 종교평화위원회는 해당 단 체에 공문을 보는 식의 '사후약방문' 대처만 이뤄지고 있다. 지속되는 훼불과 종교편향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모니터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근본 예방책인 종교 평화법과 중요범죄방지법 제정에도 불교계 와 시민사회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종교평화위원회가 제 위치에 돌아와야 한 다. 위원장 선임과 모니터링팀 구성이 필요 하다. 작은 균열이 댄을 무너뜨린다. 균열을 막을 수 있는 종교평화위원회가 다시 재가 동되길 바란다.

도난문화재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

지난 5월 말 조계종 문화부 A주임은 갑자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상시 진행되는 문화재 경매 모니터링을 위해 인사동 한 경매업체 도록을 보던 중 도난품으로 보이는 성보문화재들이 대거 물품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문화부 스님들과 직 원들은 경매 현황을 급히 찾았다. 경매가 진 행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물론 신고를 접수 한 광역수사대 형사들과 문화재청 직원들과 함께였다. 당시 도난품으로 확인된 4점이 압 수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그 로부터 5개월 뒤인 10월 22일, 조계종 총무 원에서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추가 조사로 사상 최대인 48점의 불교문 화재를 회수한 성과를 낸 데 이어, 그 과정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조계종과 경찰, 문화 재청이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와 예방을 위 한 체계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조계종

과 경찰청, 문화재청은 협약을 맺고 불교문 화재 도난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수사과정 협조 등 긴밀한 협력 프로세스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문화재청이 파악하는 도난문화재는 모두 796건에 이른다. 문화재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도난 문화재 정보'를 제공한 다. 이중 성보문화재인 경우 불교사 다보탑 작은 사자상은 3개가 사라지고 한 개만 남았 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석조문화재 작은 부수물 이 여전히 문화재 절도범들의 손쉬운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꼭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문화재 절도의 공효시 효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소중히 가꾸고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랑 스런 유산이기 때문이다.

불교평론 열린논단

'세월호' 앞에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 시대 맞는 삶의 지침 주어야

계간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 력연구소가 주관한 10월 23일 열 린논단에서 오강남 리자이나내 명 예교수는 '세월호 앞에서 종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논단에 섰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종교계의 자성의 움직임을 강조한 오강남 명예교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불교평론>은 10월 23일 오강남 교수를 초청해 '세월호 앞에서 종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논단을 진행했다.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 건.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꽃다운 생 명들이 사라져 갔다. 이런 애달픈 죽음 앞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 주제는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지 만 그러나 진지하게 종교를 공부하는 사 람이라면 꼭 한번은 자문하고 자답해야 할 질문이다.

세월호 사건을 보며 국가 최고 책임자 는 '국가개조론'을 부르짖었다. 국가 개 조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바뀌어야 한 다. 먼저 종교계, 특히 한국종교의 절반 을 차지하는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자기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번일을

계기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불의 부정을 통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다짐하며, 서로 부둥켜 안 고 위로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지만 한결 음 더 나아가 종래의 무의미하게 되풀이 하던 교리나 관행을 철저히 재검토할 필 요가 있다.

세월호 같은 참사를 두고 불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해답은 이를 업의 관 점에서 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일반적 으로 이해된 대로의 업이란 사람들이 몸, 입, 생각으로 짓는 선악의 행위를 말한 다. 과거에 지은 행위로 현재에 대응하는

응보를 받고 다시 현재의 행위로 미래에 상응하는 결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에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과거에 행한 업의 업보다.

그러나 인과응보 같은 업 사상이 과연 세월호에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비극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까. 그리고 그 것이 희생자의 가족이나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나 위 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통속적인 태 도를 종교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종교에 표층에만 머무는 종교적 발달장애를 치유하고, 심

중 종교로 나아가야 한다. 불교적 관점으 로 본다면 탐진치에 찌든 나를 비우고, 참된 나를 찾는 과정을 걸어야 한다. 기 독교적 용어로 본다면 신성 내지는 내 안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지금의 내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표층에 머무르는 종교에 불과하다. 나의 욕망을 보려져 나를 찾는 수단이 되는 심중 종교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 종교만이 오로지 유일 한 진리라고 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 다면 그 누구도 이 시대를 바꾸는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심중종교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절대적 진리는 어느 누구의 독점물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인 무리가 코끼 리를 만진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이 앉아 서로 대화하면 진리의 세계 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한국종교 전체가 침몰하는 일이 없으려면 불교가 기독교와 손잡고 이시대에 걸맞는 삶의 지침을 줄 수 있는 살아야 는 종교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라 믿는 다. 이것이 결국 종교의 영성도 회복하 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사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종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향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민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치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격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